

남원 발전 견인 97개 신사업 발굴

사업비 1조990억 규모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 KTX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 구축 등

남원시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총 1조 990억원 규모의 97개 신사업을 발굴했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보고회가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 부서가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추진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는 총사업비 1조99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97건을 발굴했고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KTX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총사업비 미정) ▲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센터 구축(98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국립 전통예술 Hi-Tech 복합 교육원 건립(총사업비 미정)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100억원) ▲남부권 드론 MRO센터 구축(100억원) ▲남원 쌍교지구 우수 저류지 설치사업(254억) 등이다.

시는 발굴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논리와 타당성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 연초부터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또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미반영된 주요사업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당분간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예산 사업이 축소되는 등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철저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농작업장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농업경영체 5곳 컨설팅 비용 70% 지원 등 1월까지 신청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작업 현장에서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5인 이상 농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1억3600만원 규모의 안전관리 실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농작업장 역시 포함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범사업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이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및 기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재해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시

의 이번 사업들은 농가의 관심이 크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업경영체 5개소를 선정해 200만원 내에서 전문 컨설팅 비용 중 7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1억3600만원을 투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사업 등 관련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재해예방도 안전보건 교육도 병행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제1형 당뇨병환자’ 의료기 구입비 지원

올해부터 환자 101명 대상 본인 부담금 최대 124만원 혜택

남원시보건소가 올해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면역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매일 인슐린주사 등 기기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남원시보건소는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이 사업을 시작으로 신선힬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거주자다. 19세 미만 5명, 19세 이상 96명 등 총 101명이다.

시 보건소는 올해 1월1일 이후 구입한 당뇨관리기 3종(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대해 19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인 기가값 10% 중 90%(최대 100만원)를, 19



남원시보건소 관계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 제공>

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인 기가값 30% 중 20%(최대 124만원)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이·통장, 언론매체, 전광판, 경로당 IPTV 등

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청년 창업자금 지원 최대 5000만원

주거·일자리 등 청년정책 본격화...구직 수당·두배적금 등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과 함께 여는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주거, 일자리, 창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본격화한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활력수당(구직활동 수당 300만원 지원) ▲전북청년 두배적금(청년자산형

성지원) ▲시군 청년혁신사 예비창업지원 등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또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창업 패키지(1월 중으로 3개소를 모집해 2년간 지원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명절 앞 공익직불금 129억 지급

농가 1만3450명 대상 전년보다 20억원 증액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총 129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당초 109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해 올해 총 129억원 규모로 상향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가 약 1만 3450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9억원은 1월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로 20억원의 시비 직불금이 5월 지급된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읍시 자체 재원에서 마련했다. 도내 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되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 지급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람사르습지 식물·곤충 모니터링 교육

다음달 4~27일...누구나 신청

고창군이 오는 2월 4~27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식물 및 곤충 관련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람사르습지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매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역 상관없이 이메일과 네이버폼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곤충과 식물의 이해, 기후변화와 곤

충, 겨울을 지낸 로제트 식물과 식물의 한살이, 인간과의 관계로 보는 식물 등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습지 생태계 변화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7회 이상 교육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생태자원 모니터링 참여 기회도 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